



박소현의 섹.시.토크

S네 부부는 결혼한 지 이제 일 년 남짓 되었다. 둘 다 노총각 노처녀로 만나 현재 삼십대 후반을 치닫고 있는 것만 그래도 엄연히 신혼부부이다.

“왜 싸운 뒤에는 꼭 섹스를 해야 화해를 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니들 남편도 그래?” 섹스라는 말에 다들 눈이 번쩍 떠졌다.

결혼 경력에 제일 오래된 친구가 입맛까지 다 서기면서 반색을 한다.

듣고 보니 그랬다. 워낙 착한 남편과 사는 탓에 크게 싸울 일은 없지만 그래도 그들 부부 역시 크고 작은 일로 투닥거리는 일이 간혹 있었다. 그렇게 한 차례 다툼이 오가고 나면 하루 정도는 말도 안 쓰고 눈길도 피해가며 냉전을 유지하지만, 하루가 지나면 서서히 눈빛이 풀어지면서 화해의 무드가 자연스레 조성된다.

그때도 자존심이 있어서 남편이 미안하다고 제대로 용서를 청해오기 전에는 마음을 완전히 풀지 않는 것이 S의 원칙이었다.

애초에 싸움의 발단이라는 것이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거나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 따위로 시작되는 탓에 용서를 빌어야 하는 쪽은 대부분 남편이었다. 사소한 잘못을 싸움으

로 키우고 문제를 확대시킨 데에는 S의 못된 성격도 상당히 기여를 했지만 말이다.

그런데 남편은 제대로 용서를 청하기전에 늘 섹스부터 하려고 들었다. 그러니까 약간의 화해 무드를 언제나 섹스의 신호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이해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남편은 진짜 화해는 섹스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 섹스만 하면 굳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했니 하는 부차적인 결론 없이도 상황종료가 된다고 믿는 반면, S는 일단 서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하는 결론을 맺고 용서를 주고받음 다음에, 섹스를 해도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 완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들이대는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나를 인간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처사에 화가 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남자에게 섹스는 마침표 같은 거야. 처음 사

를 때 섹스를 하면 이 여자가 내 여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싸웠을 때에도 섹스를 하면 모든 화해가 종료된다고 믿는 거지.”

결혼생활에 이력이 붙은 친구들의 조언이 어지거 시작됐다.

“그러니까 남자는 입으로 말하기 보다는 몸으로 말하고 싶은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렇게 너랑 섹스를 하겠느냐. 그러니 내 몸이 하는 행동이 곧 내가 하는 말이다. 뭐 이렇게

“남자에게 섹스는 마침표 같은 거야. 입보다는 몸으로 말하고 싶은 거야. 하자고 덤비는 행동이 곧 ‘미안하다, 잘못했다’ 표현이지.”

게 되는 거지.”

“그러니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섹스가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화해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느낌이라구.”

“화해의 수단이나 사랑의 표현이나 그게 그거지 뭐. 표현만 다를 뿐 다 똑같은 의미야.”

“그래도 싸우고 나서 마음이 다 안 풀렸는데 하자고 덤비면 좀 싫긴 해.”

“그러니까 그 하자고 덤비는 행동이 곧 ‘미안하다, 다 내가 잘못했다.’ 이 말의 표현이 아니라

까.”

“어쩌면 아닐 수도 있지. 싸움이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섹스를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건지도 모르잖아. 여자들이 그걸 오해해서 남편 마음이 풀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휴, 그건 너무 억측이다.”

친구들끼리 실랑실래가 오갔지만 딱히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하긴 남편의 마음, 그것도 S 남편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완전히 파악할 수 있겠는가.

“어쨌든 중요한 건 말이야.”

결혼생활을 제일 오래한 친구가 운을 떼더니 간단하게 결론을 맺어주었다.

“결혼생활이 오래되면 말이야. 남편이 섹스를 화해의 수단으로조차 사용하지 않는 때가 찾아와, 아무리 화해무드가 조성되어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지, 아니, 그때가 되면 이삼십살이라고, 싸워도 그런대로 잘 지내는 경지에까지 이른 다니까. 웃긴 건 그게 섹스한다는 거야. 남편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서 편하긴 한데, 섹스해, 어쩔 수 없이 섹스해.”

그 친구의 말은 그러니까 남편이 섹스를 화해의 마침표로 사용할 때가 오히려 좋을 때라는 말이었다. 그러니 남편이 마침표를 찍자고 덤비면 그냥 같이 찍어주려고, 괜히 물음표를 붙여 공방을 늘어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언젠가는 마침표조차 찍지 않는 싸움이 찾아온다고, 몸으로 화해하지 못한 싸움은,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닌 문장처럼 두 사람 사이를 동등 떠나치게 될 거라고... <연애칼럼니스트>

또 거리에서 노래하는 악사 ‘글렌 한사드’와 그에게 매료된 이민자 ‘마르케타 이글로바’가 음악으로 풀어나는 인디 영화 ‘윈스’도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검색어에 올랐다.

이외 삼성 라이온즈의 양준혁(38) 선수가 MBC 토코스 ‘무릎팍 코너’에 출연, 특유의 솔직함과 재치있는 입담으로 ‘2인자의 서러움’ 등 자신의 심경을 고백한 것도 팬들의 호감을 사면서 검색어에 포함됐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뉴스퀴즈

90.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지난 16일 8개조 49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고 마무

참여 방법 /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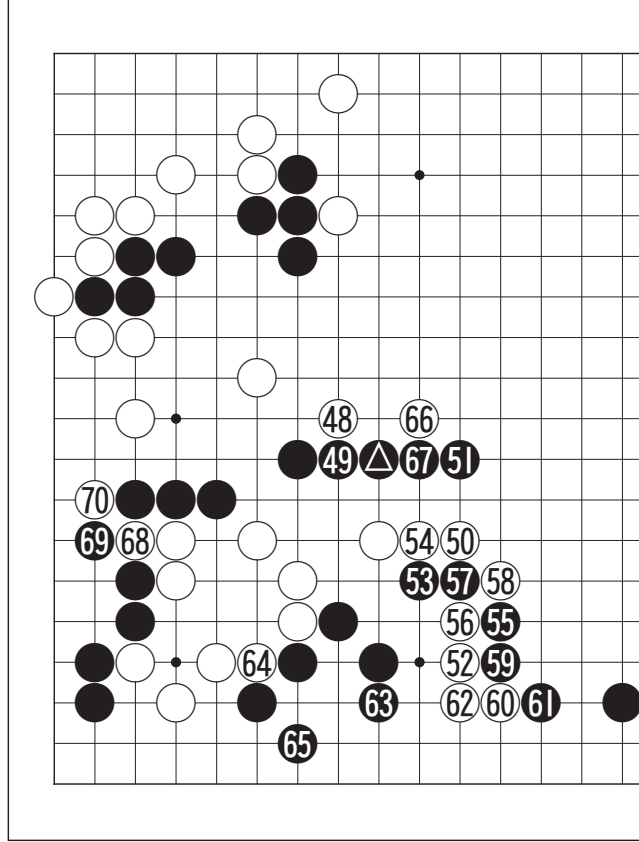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and their daily fortune. Includes signs like 36년丙子, 37년丁丑, 38년戊寅, etc.

검색절정 키워드

여성 댄스그룹 베이비복스 리브의 전 멤버 한애리(22·본명 권애리)가 성형수술 뒤 과다 출혈로 치료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의 클릭 세례를 받았다. 또 성형수술 부작용을 경험했던 다른 연예인들도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관심

가수 한애리 성형수술 부작용

연예인들의 결혼, 열애설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대대했다. 미스코리아 출신 이승연(39)의 결혼 소식을 비롯, 최진실(39)의 친동생인 가수 겸 탤런트 최진영(36)과 이



제3회 전남십자사배 전국 아마최강 결승전. 흑 51로 호호탕탕하게 진군하여 흑이 전국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박문홍 7단도 이쯤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또 길게 가면 아무래도 연구생 출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바둑소식. 이세돌 9단이 22일 삼성화재 유성연 수원에서 열린 제12회 삼성화재 세계바둑오픈 준결승 3번기 2국에서 중국의 황이중 6단을 169수 만에 흑 불계로 제압, 2연승으로 결승에 올랐다. 이 9단은 중반 이후 상·하반에서 큰 집을 구축, 기선을 잡은 뒤 중앙에서 반전을 노리던 황이중 6단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승부를 마무리했다.

굿모닝 잉글리쉬 <1040>

Thank God! 정말 좋네! 잘됐네. A : Thank God! we came here early, or there would be a long line at the check-out counter. B : Weekend days are always busy shopping days! A : That's true. Can you go to the meat section to get some beef fillet for me, please? B : Sure, I also want to get some chicken breasts, too. A : OK. I will meet you at the cashier's booth.

오하오우 니혼고 <1040>

熱(あつ)いものは苦手(にがて)で..... 뜨거운 것은 익숙치 않아서.... A : 仕事(しごと)も一段落(いちだんらく)して, きりもいいからコヒでもどう. B : それはいい. 気分転換(きふてんかん)には熱(あつ)いコヒが一番(いちばん)ですよ. A : あれ, 木村(きむら)さん, どうして飲(の)まないんですか. 冷(さ)めちゃいますよ. B : 僕(ぼく)、「猫舌(ねこじば)」なものですから, 熱(あつ)いものは苦手(にがて)で少し冷(さ)めたぐらいがちょうどいいんです. A : 일도 일단락 되고 끝맺기도 알맞으니까, 커피라도 어떠요? B : 그게 좋군요. 기본 전에는 뜨거운 커피가 제일입니다. A : 어머, 키무라씨! 어쩌서 안 마시는 겁니까? 식어버려요. B : 저는 '뜨거운 음식을 잘 못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뜨거운 것은 익숙치 않아서 조금 식은 정도가 딱 맞습니다.

니하오 쑹구위 <17>

他是谁? 그는 누구예요? A: 他是谁? Ta shi shui? 티스웨이? B: 他是我的朋友. Ta shi wo de pengyou. 티스웨이 텡펑유우. A: 她是谁? Ta shi shui? 티스웨이? B: 她是我的女朋友. Ta shi wo de nüpengyou. 티스웨이 텡뉘펑유우. A: 그는 누구예요? B: 그는 저의 친구입니다. A: 그녀는 누구예요? B: 그녀는 저의 여자 친구예요.

한자 이야기 <657>

一葉知秋(일엽지추) 한 일, 잎사귀 엮, 알 지, 가을 추 일엽지추(一葉知秋)는 하나의 낙엽으로 가을이 왔음을 알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을 보고 장차 오게 될 사물을 미리 짐작함을 비유한다. 이 말은 중국 전한(前漢)의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이 저술한 '회남자(淮南子)'에서 유래한다. '고개를 한 점 맛보고 술 안의 고기 맛을 알려, 깃털과 솜을 달아놓고 마르고 습한 기운을 아는 것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밝히는 것이다. 하나의 낙엽을 보고 그 해가 장차 저물어 가는 것을 알고(見一落葉而知歲之將暮), 병 속의 얼음을 보고 천하에 추위가 닥쳐올음을 아는 것은 가까운 것으로써 먼 것을 논한 것이다.'(說山訓) 사소한 것으로 큰 것을 알고, 부분적인 현상으로써 전체 사물의 본질(本質)을 유추함을 말하고 있다. 당(唐)나라 시인 이자경(李子卿)은 '가을 벌레 소리를 들으며(聽秋蟲賦)'라는 시(詩)에서 '회남자'의 내용을 이용하여 '산승이 여러 해 동안 깨닫지 못하다가(山僧不解數甲子), 나뭇잎 하나가 지는 것으로 온천하가 가을임을 아네(一葉落知天下秋)'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